

경남도민의 아동학대 인식과 정책과제¹⁾

01.

경남도민 아동학대 인식 조사 개요

02.

경남도민 아동학대 인식 조사 결과

03.

경남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매년 아동학대사례 건수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경남은 '21년 2개소(양산시, 창원시), 그리고 '22년 1개소(진주시)가 추가 설치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지만, 아동학대 관련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없어 지역사회 인식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민들의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뿐만 아니라 예방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01. 경남도민 아동학대 인식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경남도민 1,096명
 - 표본추출방법 : 비확률표본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2023.05.08.(월) ~ 2023.05.15.(월)
- **조사 내용**
 - 설문지는 1)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인식, 2)아동학대 대처, 3)아동학대 예방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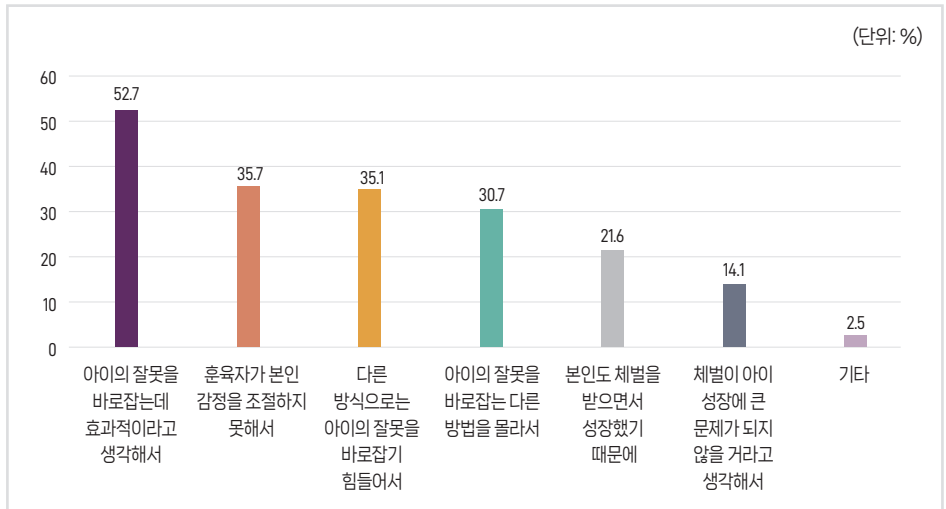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02. 경남도민 아동학대 인식 조사 결과

1) 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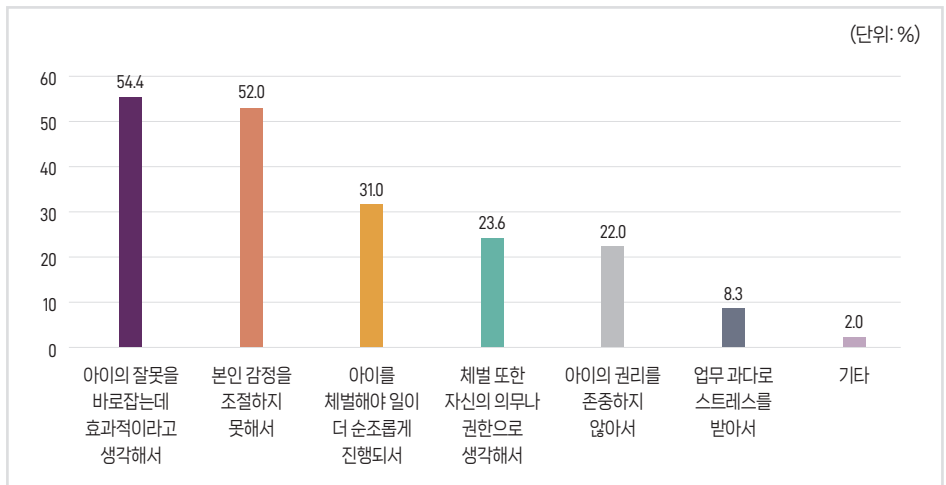
-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순위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52.7%)', '훈육자가 본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35.7%)', '다른 방식으로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힘들어서(35.1%)',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30.7%)', '본인도 체벌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21.6%)'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1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이유 (1+2순위)



- 일반 어른이 아동을 체벌하는 이유 1·2순위로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54.4%)', '본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52.0%)', '아이를 체벌해야 일이 더 손조롭게 진행되서(31.0%)', '체벌 또한 자신의 의무나 권한으로 생각해서(23.6%)',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서(22.0%)',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8.3%)', '기타(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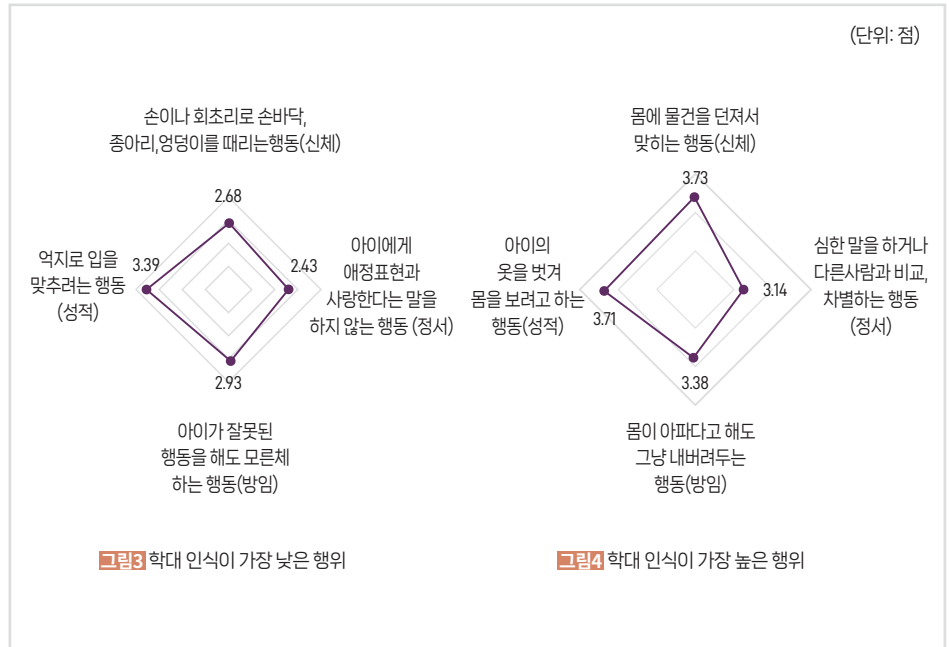
그림2 일반 어른이 아동을 체벌하는 이유(1+2순위)



- 경남도민들의 아동학대 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상황별로 항목을 제시하여 각각의 상황이 아동학대인지 여부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네 가지 유형별로 아동학대 상황을 제시하였고, 이 중 아동학대로 가장 인식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학대유형별로 제시함. 한편, 각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동학대임', '아동학대임', '아동학대는 아님', '아동학대가 전혀아님'을 선택하도록 함

그림3 학대 인식이 가장 낮은 행위

그림4 학대 인식이 가장 높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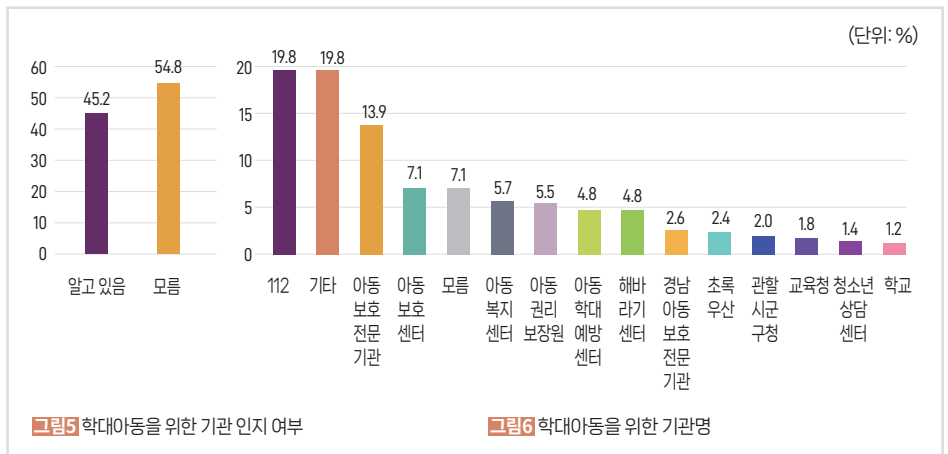
- 먼저,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을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적 학대(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행동)를 제외한 세가지 아동학대 유형의 점수가 3점 이하로 나타나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는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2.68점)'은 여전히 훈육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동(2.43점)'에 대해 경남도민 대다수는 아동학대로 보고있지 않음. 또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른체 하는 행동(2.93점)'에 대해서도 3점 이하로 나타나 수동적 훈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함
- 다음으로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로 가장 여겨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몸에 물건을 던져서 맞는 행동',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경남도민 대다수는 무조건 아동학대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음. 한편, 정서(심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 차별하는 행동(3.14점)) 및 방임(몸이 아파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동(3.38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2) 아동학대 대처

-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도와주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96명 중 절반이 넘는 601명(54.8%)이 피해아동을 도와주는 기관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1,096명 중 학대받은 아동을 도와주는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기관명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기관명을 물어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경찰서)와 기타가 각각 1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3.9%, 아동보호센터 7.1%, 모름이 7.1%, 아동복지센터 5.7%, 아동권리보장원 5.5%,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4.8%, 경남아동 보호전문기관 2.6%, 초록우산 2.4%, 관할 시군구청 2.0%, 교육청 1.8%, 청소년 상담센터 1.4%, 학교 1.2% 순으로 나타남

그림5 학대아동을 위한 기관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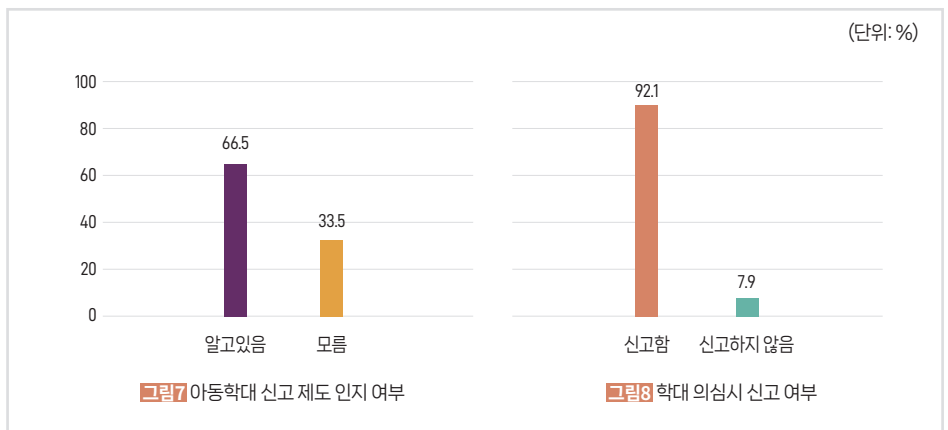
그림6 학대아동을 위한 기관명



- 아동학대 신고 제도와 관련한 인지 수준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5%(729명)가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만약 주변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신고할 것인지에 관해 물어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096명 중 92.1%(1,009명)가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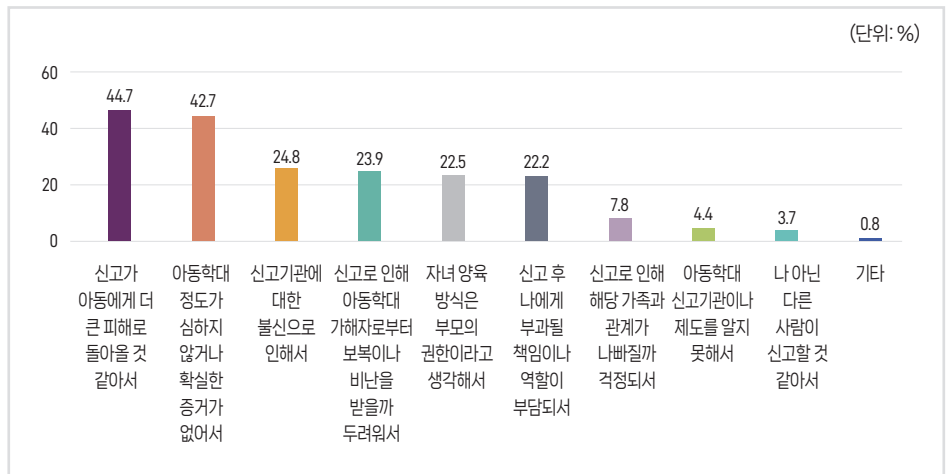
그림7 아동학대 신고 제도 인지 여부

그림8 학대 의심시 신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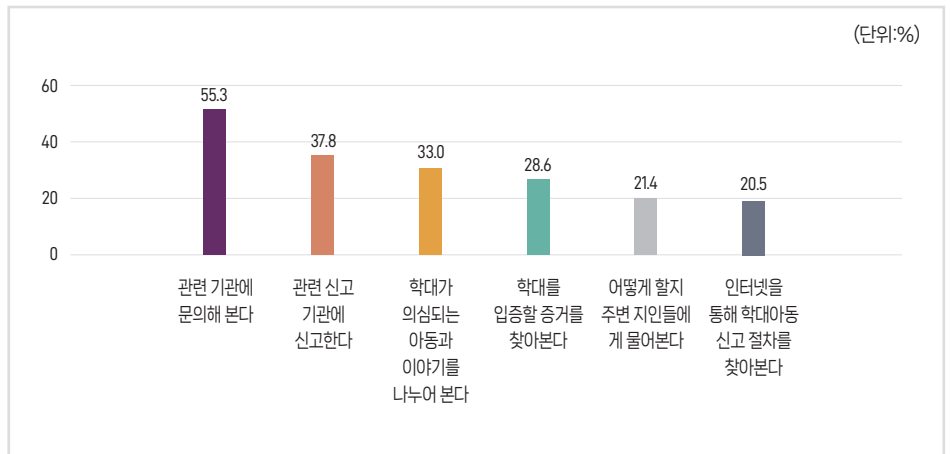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고가 주저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물어본 결과, '신고가 아동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 같아서(44.7%)',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42.7%)', '신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24.8%)',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23.9%)', '자녀 양육 방식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22.5%)', '신고 후 나에게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되서(22.2%)', '신고로 인해 해당 가족과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서(7.8%)',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서(4.4%)',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 같아서(3.7%)', '기타(0.8%)' 순으로 나타남

그림9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신고 주저함의 이유(1+2순위)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를 물어본 결과,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다(55.3%)', '관련 신고기관에 신고한다(37.8%)',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33.0%)', '학대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본다(28.6%)', '어떻게 할지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다(21.4%)', '인터넷을 통해 학대아동 신고 절차를 찾아본다(20.5%)', '기타(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10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취할 행동(1+2순위)



3) 아동학대 예방정책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1·2순위를 물어본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이 60.9%로 가장 중요하였고, 이어 '신고 즉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54.5%)',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47.7%)',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 강화(18.3%)', '아동학대 신고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17.0%)', '기타(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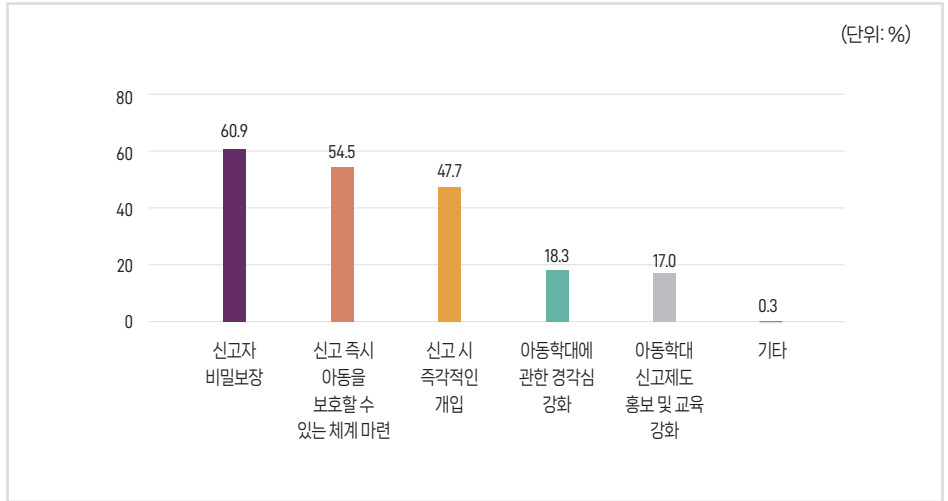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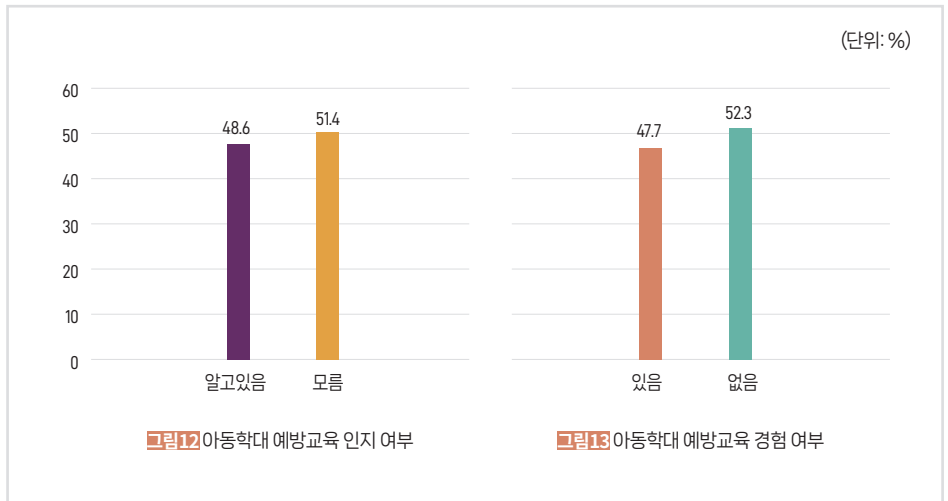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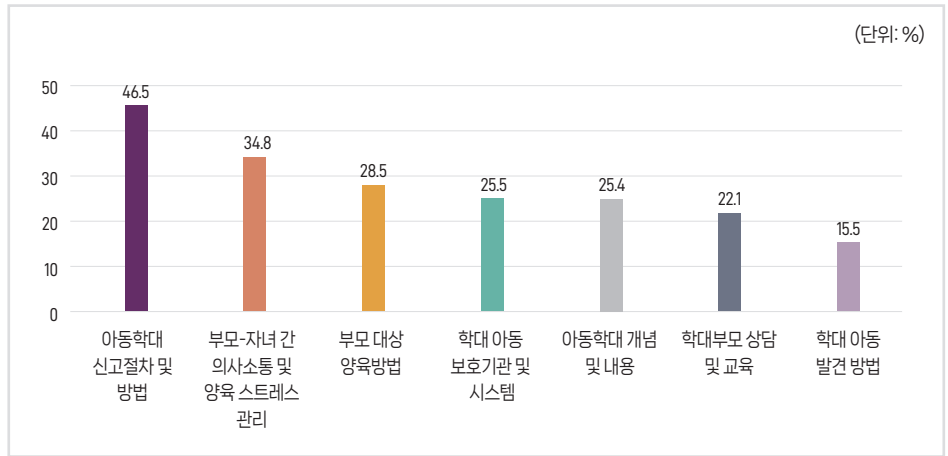
그림 12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지 여부
그림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여부



- 전체 응답자 중 예방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48.6%(533명)이고, 51.4%(563명)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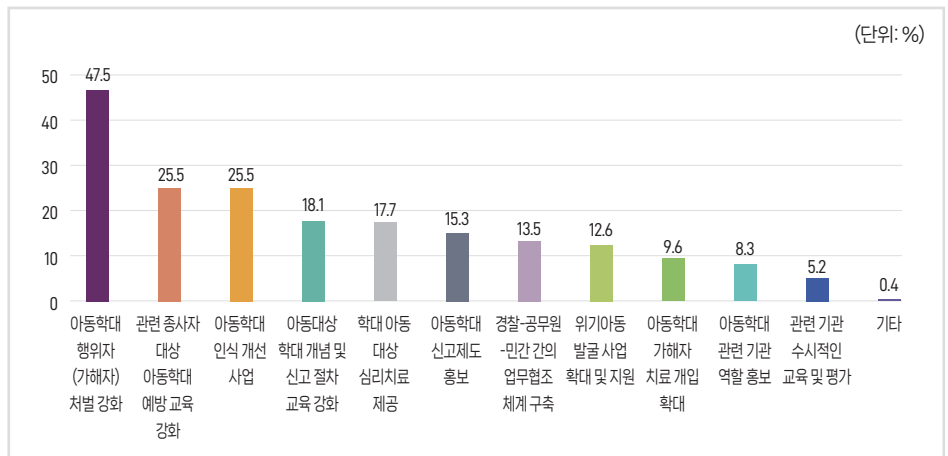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533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7%(254명)는 경험이 있고 나머지 52.3%(279명)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4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세미나(1+2순위)



-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어떤 것을 위주로 교육과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1·2순위를 물어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방법(46.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34.8%)', '부모 대상 양육방법(28.5%)', '학대 아동 보호기관 및 시스템(25.5%)', '아동학대 개념 및 내용(25.4%)', '학대부모 상담 및 교육(22.1%)', '학대 아동 발견 방법(15.5%)' 순으로 나타남

그림15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서 가장 필요한 것(1+2순위)



- 경남도민에게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2순위를 물어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강화'가 47.5%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및 '아동학대 관련한 인식 개선 사업'이 25.5%,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개념 및 신고 절차 교육 강화' 18.1%, '학대 아동 대상 심리치료 제공' 17.7%, '아동학대 신고제도 홍보' 15.3%, '경찰-공무원-민간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13.5%, '위기아동 발굴 사업 확대 및 지원' 12.6%,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치료 개입 확대' 9.6%, '아동학대 관련 기관 역할 홍보' 8.3%, '아동학대 관련 기관 수시적인 교육 및 평가' 5.2%, '기타' 0.4% 순으로 필요성이 확인됨

03. 경남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성적 학대의 네 가지 학대 유형과 관련한 아동학대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성적 아동학대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정서적·방임과 관련한 항목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정서적 학대 유형과 관련한 항목의 아동학대 인지 수준이 가장 낮아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조사에 참여한 도민 중 학대받은 아동을 도와주는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도민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명을 물어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답한 경우는 13.9%에 불과해 기관 관련한 홍보 사업이 필요하였음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도민 대다수는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한편,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시 신고가 주저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아동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거나 확실한 증거 부족 등의 이유가 1·2순위로 나타나 아동학대 신고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강하게 확인됨
- 경남도민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고 즉시 아동 보호 체계 마련,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신고자 보호 및 아동학대 신고 시 피해 아동 즉각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학대 의심 아동 발견시 어떠한 조치를 할지 물어본 결과, 관련 기관에 문의 및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앞선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관 홍보가 시급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되지 않고, 이 중 실제로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절반도 되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 경남도민은 향후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선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경각심 확산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